



교섭속보

6호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노재옥

4차례 진행된 실무교섭 노사 온도차 극명 우리가 갈 길은 총파업뿐!

4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 자율타결에 대한 입장 차 좁히지 못해

8월 5일, 5차 산별현장교섭을 끝으로 요구안 심의가 마무리됐으며 9일부터 실무교섭에 돌입하여 현재 4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됐다.

실무교섭은 요구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사측의 수용 및 수용불가를 확인하여 노사합의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4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노사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우리지부는 또다시 반복되는 노사관계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노사문화, 조직문화, 인력문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거치면서 노사문화 개선을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섭 시기만 도래하면 예전과 같은 태도를 반복하는가.

또한, 의료원은 5차 본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이 분명하게 '실무 교섭위원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실무교섭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투쟁의 시계는 9월 2일 총파업으로 맞춰졌다.

투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타결안' 뿐이다.

의료원의 교섭 태도는 눈을 찢고 찾아봐도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조합원들에게 의료원의 이러한 태도는 총파업의 길로 내모는 것이다.

총파업의 카운트다운이 얼마남지 않았다.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가 앞으로 남은 실무교섭에서도 지속된다면 ▲8월 17일 조정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18일 산별총파업 승리결의대회 ▲23일~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9월 1일 파업전야제로 제 갈 길을 가겠다.

우리지부는 올 해 조합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의료원의 결단만 남았다. 타결의지를 보여 직원들을 위한 선물을 줄 것인지, 총파업으로 사상 유례없는 노사관계 파탄의 길을 걸을지, 모든 선택은 의료원에 달렸다.



전 조합원 실천 1, 2, 3!

산별현장교섭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단체 행동을 진행합니다.

- 1단계 실천 : 요구안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 2단계 실천 : 8월 18일, 25일, 9월 1일 구호가 담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세요~
- 3단계 실천 : 9월 1일 파업 전야제에 참가하세요!

보건의료노조 - 보건복지부 노정교섭 8차례 진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복지부, “공공의료 강화 방향은 같다” 면서 구체적 대안은 “검토 중”



▲11일 보건의료노조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8차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초 대정부교섭의 닷을 올렸다!

드디어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성과가 빛을 발하는 해가 됐다.

지난 8년 동안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투쟁한 결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만든 것처럼 이번에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초로 조합원의 현장 고충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산별의 힘으로 8만 조합원의 투쟁이 드디어 정부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력충원, 교대근무 개선 지부에서 풀 수 없다면! 정책을 바꾼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의 현장 고충인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인력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 및 주 4일제 단계적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강화 ▲산별 교섭 정상화 등을 내 걸고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 면담 추진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8차 교섭을 갖고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관련 노조 요구안에 대해 집중교섭을 진행했다. 예정된 시간을 넘겨 4시간 넘게 교섭을 진행했으나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마련, 공공병원 필수경비 지원,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쟁점에서 일부만 진전된 내용이 나온 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은 박항 신임 공공의료정책관이 처음 교섭에 참석했다. 노조는 “공공병원은 이대로 더 버티기 어렵다”며 구체적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 정은경 질병청장과의 별도 면담도 요구했다.

노조는 먼저 4차례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코로나19 적정인력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질병관리청은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답하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공공병원 확충 세부 방안 수립 요구에 복지부는 “계획 실행에 대한 정부 의지

는 변함없다”면서도 “지자체와 기재부 등 다양한 입장이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의 필수 운영경비 정부 지원, 공익적 적자 해소 지원 요구에는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접근할 문제”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공공병원 확충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예타 제도를 (면제가 아닌)개선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요구에는 “의사단체 반발 등으로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노정은 12일 조정신청 전 마지막 실무교섭(9차)을 갖고 교섭 상황을 총괄하면서 요구안을 당장 해결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추진 과제 등으로 분류해 노정 간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 중심으로 추후 교섭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1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2천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정부는 현장의 움직임,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의 투쟁을 주목하고 있어 전체 지부의 공동 파업 조직과 함께 전담병원지부의 보다 적극적인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